



WORLDVIEW SPECIAL

2010년 임원수련회

PEOPLE & PEOPLE

열정적인 크리스찬 청년들의 멘토_이선일

NEWS IN BIBLE

진정한 교육자치_김중락

MEMBERS COLUM

동성애는 유전적인가_길원평

MEDIA ACADEMY

미디어의 소명_조정민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SSOCIATION OF CHRISTIAN WORLDVIEW STUDIES





SAMSUNG

Samsung
Anycall

볼 수 없던

세상이 보인다

잡을 수 없던

아름다움이 잡힌다

이뤄질 수 없던

일이 이루어진다

세상에 없던
스마트한 능력이 생겼다

GALAXY S



세상이 만만해진다

SUPER SMART



SUPER DESIGN

9.9mm에 아름답게 다 갖춘
슈퍼 디자인



SUPER AMOLED

아몰레드보다 더 밝고
선명한 4.0형 슈퍼 아몰레드



SUPER APP

깊이가 다른 S만의 생철친화형
슈퍼 애플리케이션

www.samsungmobile.com



contents

worldview

SEPTEMBER / OCTOBER 2010 VOL.125

발행인_유정철

편집인_김승욱

편집_차명실

편집위원_김중락, 김승태, 이승구, 최태연,
김원수, 강진구, 권오병, 박동렬,
한윤식, 권성윤, 유해신, 성백영,
김정일, 장갑덕

출판위원_김혜정, 오형국, 신현기

제작_진흥인쇄

주소_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대표전화_02-754-8004

팩스_0303-0272-4967

E-mail_(사무국)ingo@worldview.or.kr
(학회)gihakyun@daum.net

Homepage_www.worldview.or.kr

WORLDVIEW SPECIAL

- 04 세계관운동의 나아갈 길_전광식
- 08 세계관운동과 지역교회_황성건
- 12 2010년 임원수련회를 다녀와서_임지연

PEOPLE & PEOPLE

- 16 열정적인 크리스찬 청년들의 멘토_이선일

NEWS IN BIBLE

- 20 진정한 교육자치_김중락

MEMBERS COLUMN

- 22 동성애는 유전적인가_길원평
- 25 세계관으로 본 음악_이경원
- 28 유럽의 화해자 ROBERT SCHUMAN_최용준

BOOK REVIEW

- 30 부담스러운 고민 회심을 말하다_편성희

MEDIA ACADEMY

- 32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안내
- 34 미디어의 소명_조정민
- 38 전직 언론인의 체험적 언론관_이인용

MOVIE REVIEW

- 42 아저씨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_강진구

WORLDVIEW NEWS

온전한지성DEW가 WORLDVIEW로 제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세계관운동의 나아갈 길

지난 2010년 8월 9일~11일까지 대구에서 2010년 임원가족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통합 1주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운데 특강을 맡아주신 전광식 이사의 강의내용을 회원들과 나누고자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세계관 운동이 원론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 교회사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후, 우리가 세계관 운동에 있어 무엇에 주력해야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계관'입니다. 인생관, 우주관, 가치관 등 다양한 '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은 관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중국학자들은 인간이 본다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볼 견(見)입니다. '견(見)'은 그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 창밖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볼 시(視)입니다. '시(視)'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고, 보려는데 자기의식이 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음악회를 관람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관(觀)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눈을 감아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견(見)과 시(視)가 눈으로 보는 것이라면 관(觀)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에 '마음의 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관을 논할때 관념적으로만 논의해도 될까요?

독일 근대 논의에서는 세계관을 관념적으로만 보고 오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관은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에서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현실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만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온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0-21세기는 변영과 야만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 보여준 것이, 우리가 가르친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느 시대와 비할 수 없는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산업 문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쟁과 대량학살,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몰화 등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차 레일에 비유한다면, 기차가 두 선로로 달리듯이 우리가 타고 가는 기차는 하나는 문명화, 하나는 야만화의 상반된 선로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지배한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20-21세기는 소위 다양성의 시대이지만, 20세기를 지배한 것은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세계관입니다.

20세기만큼 과학이 발전하고 위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학은 한편으로 과거 종교나 철학이 설명하던 것들을 대체하여 이제 유일한 진리의 표준, 유일한 설명자가 된 듯합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진화론과 같은 과학의 주장이 진리로 교육되고 있고,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과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문명의 첨단을 체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학적 세계관이 이 세대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은 경험과학을 뜻하는데 ‘경험과학’은 반드시 시공간에서 경험되는 세계만 학문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유일한 실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는 초월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이들에게 초월계는 없으며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싹튼 세계관으로 ‘실존주의적 세계관’입니다. 20세기 전반을 보면,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던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까지 실존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이 드물 정도로 실존주의는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부조리, 모순, 한계 상황을 경험하며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즉,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그 답으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포





스트 모던적 세계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던을 짧게 정의해보자면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신론을 절대적으로 주장했고, 이를 반대했던 계몽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적 절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주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20-21세기, 혼란기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는 '과학적 세계관', 하나님은 죽었다는 '실존주의 세계관', 그리고 존재 여부에 의미를 두지 않는 '포스트 모던적 세계관'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0-21세기를 지배한 이 세 가지 세계관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신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부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세계관이 이론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을 유도하고, 사람들에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무주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존재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의 삶이 허무하고 맹목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60년대 히피부터 오늘의 자살신드롬까지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가 없다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허무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초래합니다.

이제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세상을 하나님 없이 이해하는 주장에 대해,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기원과 과정과 목적, 인간의 기원, 과정 목적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설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삶을 이해하도록 하는 주장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무신론이 팽배해 허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온 세계관 운동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 외국의 저작에 많이 의존적이었습니다. 이론에 있어 독창성이 결여되었고, 한국적 삶의 이해가 부족해 이론과 적용의 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국의 이론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세계관 운동이 인문학적 담론으로 흘러갔습니다. 학자적인 논의로 학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합니다. 3. 세계관 운동이 개인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 목회자들의 무의식, 무관심으로 교회적 수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자라나는 중,고등생들에게는 세계관 교육이 중요한데 그들에 대한 교육이 미미했고, 평신도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6. 운동의 목적대로 관점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삶의 변화로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삶의 변화로의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강의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운동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1. 세계관 운동은 성경적 운동이기 때문에 신학적 기초가 성경적으로 바르고 든든해야 합니다. 혼합주의라던지 성경을 비판하는 관점이 들어오면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자기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 세계관 운동 본래의 취지를 알고, 이를 탐구하는 단계에서 인격과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관점의 논의로만 끝나지만, 관점이 바뀌어서는 기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관이 철저히 형성되어 있더라도 내가 기독교적으로 현실에 살아가는 것은 관점 변화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관점이 형성되어 죄를 죄로 알지라도 죄의 파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관점형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세계관 운동에서 누락되어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삶에서는 달라진 부분을 찾을 수 없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세계관 훈련을 받은 사람보다 삶에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기도, 말씀, 능력운동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한국적 토양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바른 기독교 세계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4. 교회와의 유대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후원단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로 인식하면, 후원은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교회와의 유대성이 약해지면 그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고 지나치면 목회자들이 탈 교회 운동으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5. 차세대 교육에 대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더라도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한국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관 운동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공동체 의식, 세계관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재가 없습니다. 교재개발이 결정적입니다.

6. 우리 자체의 운동을 내실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역량을 내실화해서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7. 타 운동과의 연계도 모색해야 합니다. 하나의 운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다른 운동과 연합한다면 세계관 운동이 다양한 운동의 중심점이 될 수 있

지 않을까요?

8. 한국사회에서의 방향성제시를 (청년, 한국사회 비전 등)할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9. 문화에 대한 변증은 꾸준히 이뤄져야 합니다.

10. 아시아 기독교 세계관 흐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파송된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는 보다 적게 고민합니다. 우리의 운동을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운동과 결부해,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확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 보여준 것이, 우리가 가르친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속적인 것을 교회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잡혀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우리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의 열매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는 많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전광식 고신대 신학과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효(孝)교육 지도사 및 강사 양성교육 효강사 자격증 취득과정(1기)

오시는 길



최정성 목사

오늘의 세계는 물질문명이 극대화되어 가고 핵가족화되면서 도덕과 윤리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교행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7월 20일에 효행장려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실천 내용으로 2011년부터 초·중·고 과정에서 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 지부를 설립하고 효교육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하오니, 개원식에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개원식

일시: 2010년 10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인천효교육원(한국효교육문화센터)

● 표어: “효” 교육과 문화를 통해 민족통일 공동체를 이루자

개강일: 2010년 10월 21일 개강(1기)
2011년부터 초·중·고 의무 교육

3개월 교육 수료 후
효지도사 및 강사 자격 취득(심화과정)

- 원서접수: 2010년 10월 4일(월) - 10월 20일(수)까지
-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12주 과정)
- 교육비: 60만원(교육비는 장학금 혜택 있음: 교육 수료 우수자)
- 교육장소: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지부(인천효교육원)
- 신청조건: - “효” 교육에 관심있는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 교사, 교감, 교장출신, 대기업 임원, 공직자 출신, 군(위,령관급)
 - 목회자(목회경력 10년 이상), 목회자 사모,
 - 기타(본원에서 효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
- 특 전: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원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출시 지부 설치 및 교육원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전 화 : 032) 555-6422 / 567-9394,
(Fax) 032) 282-3023
- 상 담 : 010-3917-9125(지부장)
017-346-3686(원 장)
- E-mail : kang9394@hanmail.net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686-4번지
계정빌딩 3층(인천효교육원)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지부장 강 춘근 / 교육원장 최정성 박사

www.bumosarang.or.kr



WORLDVIEW SPECIAL

세계관 운동과 지역교회

:영향력 있는 공동체



지난 1세기 이상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성공하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공주의 목회에 빠져서 물량주의 목회를 추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저서 『성공주의 목회신화를 포기하라』는 책에서 ‘소외당하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진짜 소명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소명을 소외시키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거룩함과 함께 직업적 소명의 거룩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피상적인 영성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신령한 영성을 찾고 싶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창조와 언약에 뿌리를 내려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타난 누룩 비유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장, 확장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있는 글의 전체 문맥과 함께 이해하면, 이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니라 잘못된 성장과 부흥을 주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정복된 상황과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증거를 약화시키는 것들과의 혼합에 의해서 세워진 성공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무 부패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룩으로 상징된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운 가루 서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델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누룩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합리주의의 누룩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통치입니다. 교회가 악을 방지하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교제를 제공해온 것입니다. 누룩은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전통과 형식주의의 틀에 갇혀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틀은 형식과 전통에 가려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외식도 합리주의도, 악을 관용하는 것도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외식의 누룩에 의해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합리주의 누룩에 의해서 특정종교의 과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주의 누룩에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수도원처럼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정작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지으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은 샤머니즘, 기복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은 기복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되기 원하고, 자기 앞길이 열리기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원합니다. 비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자기 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사람들의 삶에는 이중적인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소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영망입니다. 직분에 대한 이해,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비성경적입니다. 더 문제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청소년들이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년이 지나면 교회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을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비이성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머니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경계를 세워서 세상을 악한 것으로만, 교회는 회개하는 곳으로만 개념을 심어왔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이기주의로 가득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동화나라’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책을 읽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1년을 참여했는데 매우 감동을 받았다. 교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역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 후에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선교사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고맙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책을 읽어주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패는 교회 스스로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누룩이 들어와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정상적인 부흥

과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정체성도 없습니다. 단, 알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도 삶의 위한 실천의 복음에 있어서는 무지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기복주의에 바탕한 삶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운동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세계관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기초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 운동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삶의 운동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로 예수 잘 믿고 천국가면 될 거라고 얘기 하면 됩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개념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세계관 운동의 약점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려주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한풀이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길 원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풀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과 기존의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이



기주의와 이타주의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봉사 좀 합시다.” 하면 나오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선교에 힘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해도 나오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스며든 누룩을 제거하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에 다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건강한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누룩을 밀어낼 수 있도록, 깨끗한 샘물이 더러운 물을 자연스럽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 꺾어내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전처를 밟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잘 될 수 있어도,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써의 힘은 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가 영향력을 잃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 글을 쏟아 붓는다고 한 들 삶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려고 하지 않고, 한 분야씩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 선교단체에게 저는 왜 교회를 깨우지 못하느냐고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단체를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모든 크리스천들의 관점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세계관을 연구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써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세상의 실제적인 통치자,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교회는 영향력을 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삶의 현장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 삶,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글. 황성건 은혜로교회 담임목사, (사)청소년선교회를 대표

2010년 임원 가족수련회를 다녀와서

친정나들이

“따르릉~~~~”

폭염 속 달려왔던 일상을 뒤로하고 쉬고 있던 내게 걸려온 김승욱 교수님의 전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기학연) 통합 1주년을 기념하며 임원 가족수련회가 있는데, 전직 간사들도 동석한다시며 좋은 곳에 와서 그리운 분들과 교제하며 쉬라는 내용이였다. 반갑고 감사한 마음에 흔쾌히 대답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 몰려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2000년부터 2003년 중반까지 일을 하고 떠났던 기학연! 나름대로의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떠났건만, 그때의 계획과는 달리 살아온 내 모습을 내보이기엔 자신 없음을 부인할 수 없어 망설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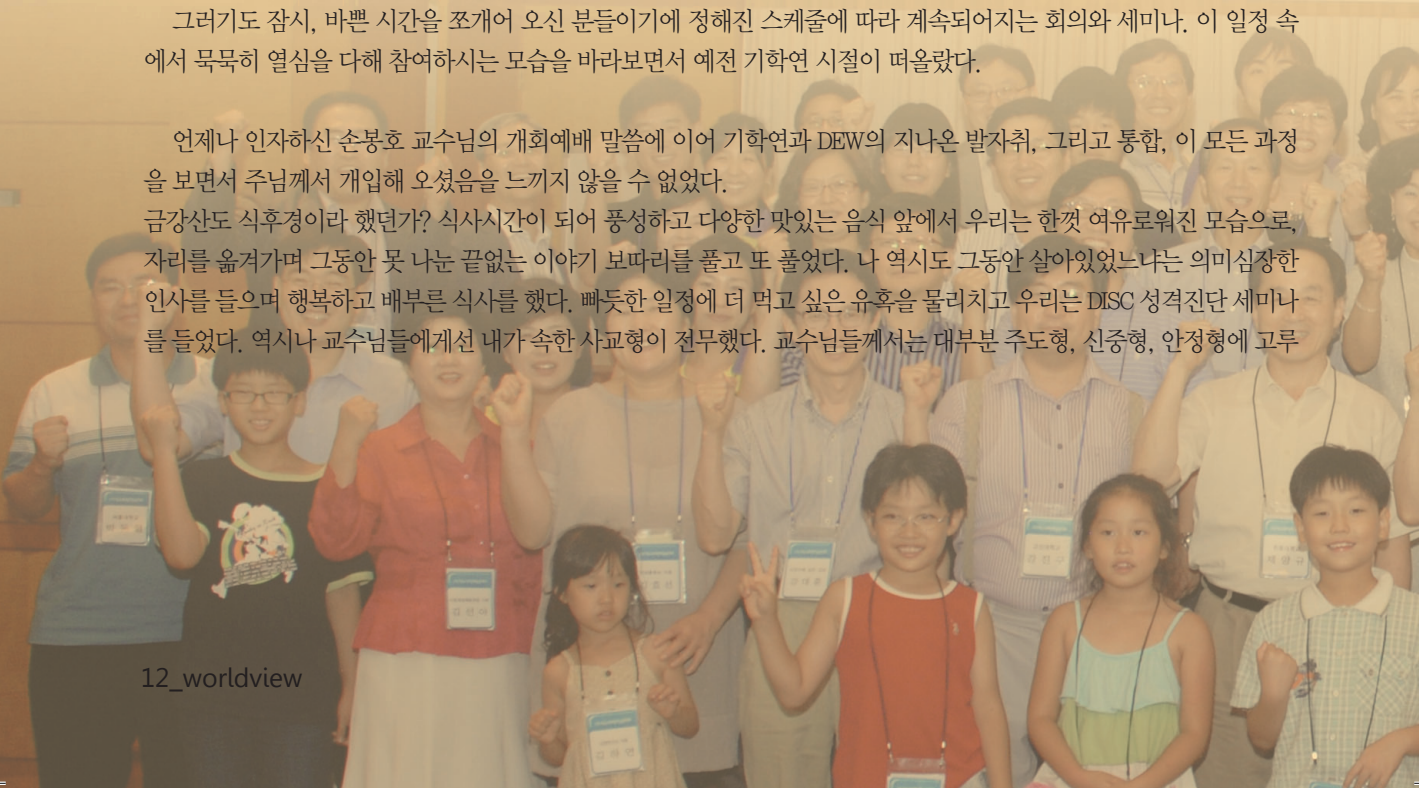
그렇지만 내게 주셨던 은혜와 귀한 분들의 사랑이 그리웠을까? 망설이고 있던 나를, 주님은 그곳으로 인도해주셨다. 화창한 8월 9일 아침, 분당까지 선뜻 태우러 와주신 차 간사님의 차에 몸과 맘을 싣고 우리는 대구로 향했다. 4시간에 가까운 긴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와 삶을 나누기엔 부족한 시간이었을 정도로 우린 쉽 없이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뒷자리에 앉은 두 아이들은 우리의 대화가 이해되는지, 집중하여 듣기도하고 가끔 대화에 참여도 하다가 자기들끼리 잘 놀아주었다.(고맙다, 애들아^^)

드디어 대구 인터볼고 호텔의 로비에 들어서니, 접수데스크에 보이는 몇몇 간사님들! 그래도 간사님들은 서울서 가끔 뵈었기에 잠깐의 인사만 나누고, 그 뒤로 들어오시는 교수님들을 대할 수 있었다. 그동안 뵈고 싶었던 분들, 명찰에 적힌 이름만 보아도 베풀어주셨던 사랑이 밀려왔다. 그때보다 더 건강해보이시는 분도 계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지 흰머리가 전보다 많이 비치는 교수님도 계셨다. 그 사이 훌쩍 커버린 교수님들의 자제분들도 세월을 실감케 했고, 전직 간사의 아이를 품에 안고 놀아주시는 모습 속에서 따스한 할아버지의 사랑도 느껴졌다.

그러기도 잠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오신 분들이기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계속되어지는 회의와 세미나. 이 일정 속에서 묵묵히 열심을 다해 참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 기학연 시절이 떠올랐다.

언제나 인자하신 손봉호 교수님의 개회예배 말씀에 이어 기학연과 DEW의 지나온 발자취, 그리고 통합,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 개입해 오셨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식사시간이 되어 풍성하고 다양한 맛있는 음식 앞에서 우리는 한껏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그동안 못 나눈 끝없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또 풀었다. 나 역시도 그동안 살아있었느냐는 의미심장한 인사를 들으며 행복하고 배부른 식사를 했다. 빠듯한 일정에 더 먹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DISC 성격진단 세미나를 들었다. 역시나 교수님들에게선 내가 속한 사교형이 전무했다. 교수님들께서는 대부분 주도형, 신중형, 안정형에 고루



12_worldview



앉아계셨다. 뭐든 신속정확한 주도형, 발표도 두 분이 나와서 할 만큼 신중했던 신중형, 서로를 배려하며 막바지에 토의 내용을 정리하셨던 안정형……. 서로를 알아가고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더없이 훌륭하고 쾌적했다. 미혼인 나 혼자 쓰는 방이었기에, 더 넓고 좋게 느껴졌던 것이라. 그렇지만 그 방이 주는 유익보다 DEW의 전직 간사이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내 친구 최외숙 간사의 방이 내겐 더한 평안함을 주었다. 그래서인지 수련회 이틀 밤 내내 전, 현직 간사들은 두 아이가 자고 있는 그 좁은 방에서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웠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이미 통합간사가 되어 있었다.

둘째 날, 어제보다 좀 더 화기에애한 모습으로 아침 식사를 나누고(그러나 한쪽 테이블에선 임원진의 회의는 계속되었다.) 대구 기독교유적지와 워터파크 팀으로 나뉘어 가족들 간의 친목을 다졌다. 오후에는 건강전도사라 불릴 만큼 재밌는 박상은 원장님의 건강법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함께 손뼉 치며 즐거웠던 음악콘서트로 이어졌다. 피곤이 점점 몰려올만한 데도 마지막 전광식 교수님의 '세계관 운동의 나아갈 길' 강의 시간에 필기를 하며 맘을 다해 청중하는 멤버들을 보며 나 또한 숙연해졌다.

좋은 시간은 왜 더 빨리 가는 걸까? 폐회예배 때 신국원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기학연에 처음 와서 듣게 된 '기독교세계관'이란 단어가 얼마나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동안 세상에, 세월의 폭풍 앞에서 조금씩 색을 잃어버린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 속 메시지가 날 한없이 겸손케 했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 또한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해 빛어진 결과 앞에 어느 누가 깨끗할 수 있을까? 기독교세계관을 접한 난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두려운 때가 많은 게 사실이다. 가장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자리에 겸손히 나아갈 따름이다.

2박 3일의 임원가족수련회, 그리고 1박 2일의 간사수련회는 친정을 다녀간 딸의 풍성한 두 손 같은 시간이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내게 큰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금번 수련회에 초대해주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감사를 전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글. 임지연 친구들교회 전도사, 전 기독교학문연구소 간사



2010년 임원수련회 후기

박상은 원장 모처럼 아내와 영국에서 유학중인 아들과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가족들과 같이 성격유형을 점검하며,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를 이루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관의 지평이 열린 듯하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신국원 교수 참여한 회원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조성표 교수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대구에서 수련회를 갖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가족이 대구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부족한 나의 예상과는 달리 대구는 시원하였고, 대구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서로 간의 비전을 나눔에 따라 지난 봄 학술발표회에 이어 대구는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갖게되었습니다. 세계관 동역자 여러분, 이젠 대구에 자주 오세요~

윤완철 교수 짧은 시간에 참 농도 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격테스트를 빙자한 내면표출 교제도 좋았는데, 홀아비로 참석한 바람에 룸메이트를 얻어 그게 또 잠을 줄일만한 교제의 기회도 되었습니다. 준비팀에 감사드립니다.

박신현 교수 동역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조창근 교수 처음 동역회 임원수련회 참석했었는데, 자주 모이고 교류가 활발하여져서 우리의 지경이 더욱 넓어져 한국 교회와 사회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실현되어 주님께 영광되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대훈 목사 목회자로서 기독교세계관 사역을 목회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김승욱 실행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참석했는데 강의와 모임을 통해서 마음에 속에 잠재해 있는 기독교세계관 사역에 대한 열망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이운재 교수 가족까지 초대할 모임이라 좋았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름휴가를 겸한 여행이었다.

원성욱 PAUA 사무국장 지성 사회의 대표인 교수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학문의 영역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며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누심이 큰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식 교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학문 활동에 열심하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다 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동역의 힘은 아무래도 멤버 상호간의 친밀도에 비례하게 될 것 같으므로 힘들더라도 이런 기회를 더 자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임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임원들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봉 교수 각 지역에 흩어진 여러 동역자들의(가족)과 함께 모여 방향을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강연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수련회 포토제닉



도착과 함께 일행들과 사진



개회예배를 인도하는 손봉호 이사장



즐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던 DISC 성격진단 테스트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었던 전국 지역장 회의



편편치에서 즐거운 물놀이



황성건 목사의 특강



대구 기독교문화유적지 방문



대구 칸투스 중창단의 멋진 공연



아쉬운 작별의 시간



PEOPLE &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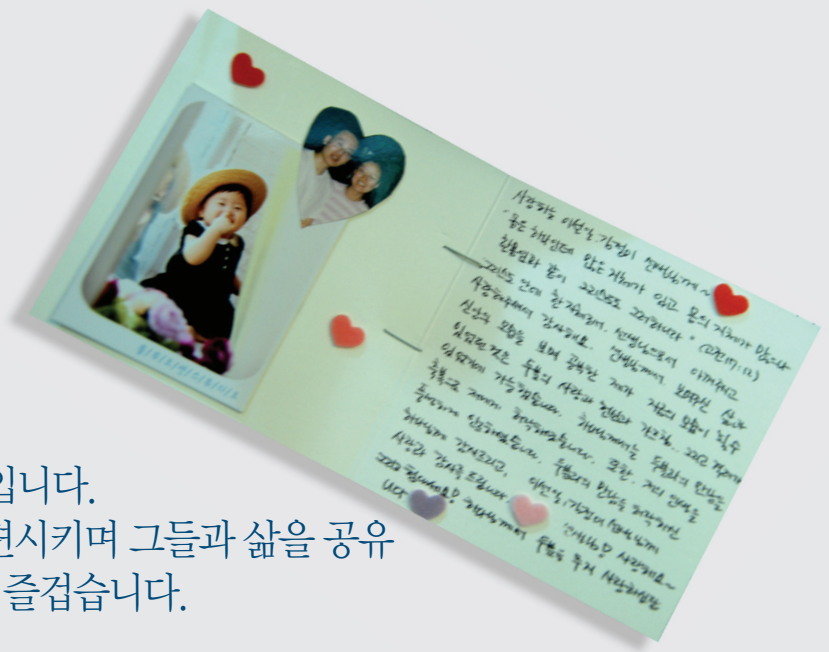
열정적인 크리스찬 청년들의 멘토

울산소망병원 원장

이 선 일

16_worldview





가르치는 일은 저의 달란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그들과 삶을 공유
하여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가족소개와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주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있는 청년사역자인 아내와 3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과 큰 아들은 뉴욕과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아내가 46세에 낳은 일곱 살 막내는, 노부부인(?) 저희와 함께 울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울산의 태화교회(예장 합동)에 출석하고 있으며 교육사로 있습니다.

현재 울산소망병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병원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소망”이라는 병원이름은,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하여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큰 병원이라기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개인 클리닉으로서 약 30여명의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열악한 사정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요즘 대부분의 개원가가 그러하듯이 우리 병원도 일반적인 수술 외에는 거의 일반의(General Physician) 수준(?)으로 환자들을 치료하

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희 본원만의 특징이 있다면, 아침 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시간씩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침 시간을 약간 힘들어하는 식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창립(16년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배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기에 우선 순위에서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병원만의 특권이지요. 이러한 은혜로, 우리 병원은 두말할 것 없이 실력면과 친절 서비스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수술 후 상처 치유가 빠릅니다. 지난 세월동안 단 한 번도 의료사고가 없었던 병원이지요. 울산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또한 우리 병원은 사역자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Full time Missionary들의 Retreat Center로서 그동안 국내의 미자립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부부들이 약 10,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1달에서 3달간 그냥 쉬다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진단과 치료도 병행하며 100% Free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보험카드가 있으면 청구는 합지만, 그래도 거의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많이 아쉽게도,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의 대다수는 보험카드조차 없더군요.

끝으로 저는 우리 병원을 통해서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대와 나팔’의 역할입니다. (환자와 처음 대면할 때는, 등대의 역할로 최선을 다해 뜨거움의 빛, 친절과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고, 환자가 쾌유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



병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감사의 편지들



고 싶지 않고 싶어요.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많은 사역들을 돕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혜로 하는 사역을,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소개해드리자면 그동안 청년사역자로 강의와 교육, 훈련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사역은 지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즐겁게 일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에게 딱맞는 사역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의 결실로, 1998년에 창립한 ‘초교과 청년연합공동체(HRC HOPE Retreat Center)’가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Parttime 사역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희 부부의 맘과 눈물의 결실이지요. 이 밖에도 현재 청년코스타, Youth KOSTA, 창조회, 낮은올타리, C-LAMP(크리스천최고경영자)총무, 두란노결혼예비학교, CLA(Christian Leadership Academy)강사, 현대종교 등의 단체들과 손잡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시작하게 되셨으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원장님을 통해 훈련되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조부께서는 용현교회의 영수로 계시다가 순교하셨고, 아버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예장 합동)중 한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사에 대한 꿈이 생겼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때, 꿈에 그리던 정교사가 되어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일은 저의 달란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탁월하며(자타공인)(웃음) 그들과 삶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고 1때부터 지금까지 교사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청년사역을 꿈꿔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청년들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잠재력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면 엄청 흥분하곤 합니다.

청년사역의 20여년 중 전반기 10여년은 주로 ‘도전과 자극(Challenge & Impact)’을 통한 강의로 불씨 사역을 하였고, 후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멘토링 등을 통하여 불꽃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청년사역자를 꿈꾸는 Part time 사역자 멘토리들이 150여명 배출 되었고, 지금도 저희들과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있지요. 이들은 저희 부부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세계관동역회회는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게 되셨는지요?

약 20여년 지기(知己)인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의 양승훈 교수의 추천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동역회 내의 소중한 여러 지체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점점 더 관심과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관동역회의 사역들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바라는 것 보다는,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뭔가 좀 더 동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꼭 바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룬 동역회의 모든 지체분들의 삶과 사역에 감사의 조건이 앞으로 더욱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역회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추는 영적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사역계획이나 함께 나눌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계획과 기도제목으로는 첫 번째, 동역자인 아내와 함께 남은 후반기의 청년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 건축하다가 중단된 병원 건물의 증축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의 증축(3층에서 10층까지/바닥면적 160평)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 부부들,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역이 더욱 더 확장(질적인면에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GINNING WELL



고든 스미스 지음 | 임종원 옮김 | 양장본 | 19,500원

많이 기다려온 책이다. 이 책이 많이 읽혀져 오전한 회심의 메시지가 부활하고 회심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_이동원 목사

마치 MRI처럼 명확하게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영적 전문의의 종합 처방전 같은 책이다. _장갑덕 목사

이 책을 읽음으로 삶의 변화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 _박철수 목사

왜 다시 회심인가?

회심의 역동성을 회복하라!

온전한 회심은

경이롭고 풍성한 삶을 선물한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

_박영선 목사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비그리스도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를 바라며 강력히 추천한다.

_김승욱 교수

진정한 교육자치

지난 7월 1일부터 민선교육감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교육감제도는 1960년대 도입되었으며, 그 인선은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교육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 등으로 발전하다가 2006년 12월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직선제에 의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에도 일부 지역의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나 전국 동시선거를 통해 16명의 교육감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직선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성향의 교육감을 선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자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취임한 15명과 곧 취임할 1명의 교육감은 성향에서 10명은 보수로, 6명은 진보로 구분되는 모양이다. 앞으로 이들 간의 교육정책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벌써 진보 성향의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외고규제, 무상급식 등의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제 학생들은 교내외 집회도 할 수 있고, 두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교육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일 것 같다. 각 교육감들은 벌써부터 일제고사, 교사의 정당가입 등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제 교육에서 전 국가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보수 신문들은 연일 교육감 간의 정책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일부 교육감들의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국가주도의 획일적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격정일 수도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국가에 일

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이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쟁쟁하다. 플라톤은 공익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국가가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취해 국가에 알맞은 인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통치자가 청소년들을 국가에 필요한 존재로 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가 중심교육관은 계몽사상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교육 역시 이러한 입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정부는 법적 강제를 가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였고,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가치대로 교육할 부모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국가가 국가의 권위와 법적 한계를 벗어나 비극을 초래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 도에베르트에 따르면 국가가 지닌 칼의 힘은 일정한 영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은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되는 가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자녀교육의 최종적인 권한은 국가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4)라고 말한다. 이는 교육의 방법에 강조점을 둔 구절이지만 당부 대상이 부모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만 허락한 고유한 권한인 것이다. 좀 더 과격히 말한다면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은 오늘 우리 식탁에 무엇을 올려야 할 것인가를 타인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 정부의 역할은 사회의 다양한 고유영역들이 그들의 특징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의 가치와 관련한 간섭이 아니라 재정적 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향이 서로 다른 교육감들의 선출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것은 진보가 옳고 보수가 틀렸다는 주장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 권한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감에 따라서 지역마다 교육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길 바란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교육 때문에 지역을 옮겨가는 부모들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적 가치관 때문에.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만일 그들이 관할 지역에서 교육의 획일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지위와 권한이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관할 지역내에서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부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부모는 자신들이 선택한 교육감의 가치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의 가치와 다른 소수의 부모가 존재할 것이고, 그들의 고유한 권한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내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소수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사학에 대한 배려야 말로 자녀교육의 권한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자신들의 가치를 위해 자신들만의 학교를 만들고, 자신들의 교육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기능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사학들이 부모의 고유권한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청은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들도 세금을 내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잘 인식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돕는 기관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적 교육의 가치가 세속적 인문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지 파악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학교를 만들거나 자녀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가치문제는 버려지고 학력 담론만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독교인이 자녀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학력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이다. 기독교적 가치와 무관한 귀족학교는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킬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글. 김중락 경북대 역사학과 교수



동성애는 유전적인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주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동성애는 유전적이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gift)라고까지 하면서 변호하고 있다. 그러면 동성애가 정말 유전적인지 살펴보기로 하자.[1]

어떤 행동이 '유전적이다'라는 말은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유전자는 세포핵 안의 DNA에 있으며, 부모의 형질을 자식에게로 전달시킨다. 유전자의 일반적인 역할은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며, 우리 몸 안의 모든 구조를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여러 다른 유전자들과 상호 연관되어서 작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드물다. 특히 생명체의 행동양식을 결정 하는데는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하게 된다.

물론 아주 단순한 생명체의 행동양식은 한 두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관련유전자를 임의로 제거 또는 치환시키고 선택교배를 하면, 그 행동양식이 한 두 세대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선택교배를 시키더라도 행동양식이 아주 천천히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에 Toma 등의 연구자들은 나는 습성이 다른 두 종류의 초파리를 40년 동안 선택교배시킴으로써, 약 250개의 유전자가 나는 습성과 관계된다는 것을 밝혔다.[2] 그리고 250개 중에서 4개의 유전자를 치환시키더라도, 나는 습성에 미치는 영향을 작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로부터 소수의 유전자로 결정되는 행동양식은 한 두 세대에 쉽게 변하지만, 수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는 행동양식은 아주 천천히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추론하면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동성애란 행동양식은 아주 천천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이성애자의 가계에서 동성애자가 나오려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조금씩 동성애적 경향이 강화되어서 결국 동성애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전자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다른 행동양식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가계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동성애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적은가? 이러한 추론은 행동양식에 관련되는 유전자의 수가 많다는 일반적인 유전적 사실과 상반된다.

그러면 혹시 동성애가 갑작스러운 돌연변이의 결과인가?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유전자가 동시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야 하기에,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핵심적인 유전자 중에서 한 두 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동성애가 생긴다고 설명하기에는, 동성애가



나타나는 빈도가 너무 높다. 그림 1에서 보드시피, [3] 유전자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유전질환은 전체 인구 중에서 0.025% 이하의 빈도를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유전질환자를 모두 합치더라도, 전체 인구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4] 그런데 동성애의 빈도는 약 2.2% 이기에, 동성애가 유전자 손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빈도가 너무 높고, 그림 2에 나타난 정신질환자들의 빈도와 비슷하다. [5] 물론 이 말은 동성애가 정신질환자라는 말은 아니고, 빈도로 보면 정신질환자들과 비슷하다는 뜻이다.

동성애가 유전적이지 않다는,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근거는 자녀재생산이란 간단한 논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양식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적게 낳으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결국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은 사라지게 된다. 어떤 유전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그 집단의 성인 한 명당 한 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런데 설문 조사에 의하면 배타적인 동성애자들은 대략 성인 한 명당 0.2명의 아이를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자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동성애는 유전적이지 않고, 후천적인 경험 -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양육 태도, 친구들의 유희, 문화의 부추김 - 등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1993년에 해머 등은 동성애 남자 40가계의 X 염색체를 분석하여, 동성애 성향이 X 염색체의 한 부분인 다형질 유전자들(Xq28)의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6] 동성애자인 해머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서구 언론들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하였으며, 일반인들의 마음에 동성애는 유전적임에 틀림없다는 인식을 심어 놓았다. 하지만 1999년에 라이스 등은 동성애자 형제를 가진 52개의 가계에서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분석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동성애자 형제를 가진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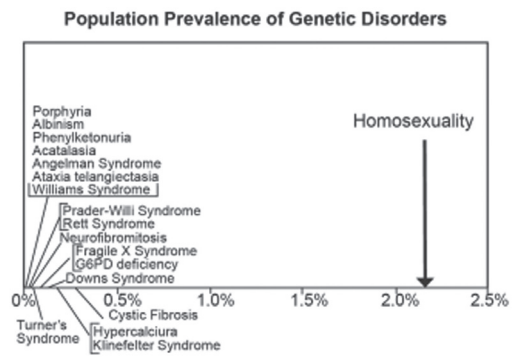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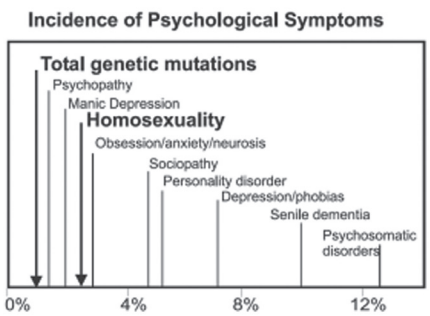


그림 2.



에서 이들 유전자의 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7] 따라서 라이스 등은 Xq28이 남성의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가계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동성애 성향과 유전자들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8]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음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는 유전적이다’는 오해를 여전히 갖고 있게 만들었다. 그림들과 이 글의 상당 부분이 저자의 허락 하에 ‘My Genes Made Me Do it’에서 발췌하였다.[1]

현재 한국의 동성애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문화와 외국의 영향으로 점차 많아지고 있다. 동성애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그때는 동성애 확산을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게 되고 우리 자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 유혹에 노출된다. 아직까지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에, 지금 최선을 다해 동성애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필자는 올해 안에 동성애 확산 반대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참을 원하시면 꼭 연락을 바란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것은 쉽지 않은 전쟁이기에 더욱 가치 있는 일이다.

글.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 [1] N. Whitehead and B. Whitehead, My Genes Made Me Do it (Lafayette, Louisiana: B. K. Huntington House, 1999).
- [2] D. P. Toma, K. P. White, J. Hirsch, and R. J. Greenspan, Identification of genes involved in *Drosophila melanogaster* geotaxis, a complex behavioral trait, *Nature Genetics* 31, 349, 2002.
- [3] Figure is taken from PEDINFO on the internet at <http://w3.lhl.uab.edu> in 1999.
- [4] L. L. Cavalli-Sforza and W. F. Bodmer, *The Genetics of Human Populations* (San Francisco: W. H. Freeman, 1971).
- [5] R. C. Kessler, K. A. McGonagle, S. Zhao, C. B. Nelson, M. Hughes, S. Eshleman, H. U. Wittchen, and K. S. Kendler,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 1994.
- [6] D. H. Hamer,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1 (1993).
- [7] G. Rice,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665 (1999).
- [8] B. S. Mustanski, M. G. DuPree, C. M. Nievergelt, S. Bocklandt, N. J. Schork, D. H. Hamer,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online, unpagged) (2005).



세계관으로 본 음악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삶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이 현대를 사는 우리와 특히 기독교 음악인에게 다음과 같은 본질적·비본질적인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됨을 선포한다.

- 음악을 하는 이유와 책임, 창조와 예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하나님께서 음악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과 그분의 뜻을 음악에서 찾는 것이 우리에게 창조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말하는 인본주의자의 말이 사실인가?
- 예술적인 곡과 교회 음악(종교곡)은 어떤 구분을 갖는가?
- 왜/어떻게 음악 교육을 하는가?
- 음악의 왜곡과 그 결과는? 음악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면 해결 방법을 없는가?
- 현재의 음악 활동(교회를 포함하여)은 정상적이거나 건강한가?
- 음악과 구원은 어떤 관계인가? 하늘 나라와 음악의 관계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아래의 글들은 목회자로서도 아니고 물리학자나 수학자도 아닌, 순수 작곡을 전공한 사람의 음악적 지식에서 출발하여 여러책과

고민을 통해 정리한 것이며, 아래의 정리가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대답이 될 수 있음을 믿는다. 음악 감상이나 악보가 곁들여 진다면 좋겠지만, 많은 부분을 상상에 맡기게 됨에 양해를 구한다.

음의 근원은 소리

소리의 근원은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발하신 말씀이다. 만물이 말씀하심 따라 창조된 것처럼 음악이 사용하는 소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창조된 것들은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다. 자연의 법칙들이 그것이고, 그 많은 법칙 중에서 소리의 법에 대해 나누려고 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1:1-3).”

소리의 원리

소리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소리는 소음과 음향으로 나누어 진다.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면 동그랗게 사방으로 고른 원을 그리며 퍼지고, 물결은 멀리 갈수록 약해지고 어딘가 부딪히면(장애물) 반대로 흘러간다. 바람이 일면 물결이 빨라지기도 하고, 빨리 멈추어지기도 하며, 고른 물결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소리는, 이런 물결

의 움직임과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져 증폭되지만, 물결과 는 다르게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두 물체가 부딪히면 소리가 발생하고, 그 소리는 공기의 흐름을 통해 공간 안에 증폭되고 전달된다. 소리의 색깔도 이 부딪치는 물체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고 공기의 흐름, 부딪히는 곳의 재질에 따라 다른 울림을 만들어 낸다. 이 공기의 흐름, 즉 기류를 음파(음 의 파도)라고 한다. 말하는 것, 새들이 우는 것, 빗소리, 천 동소리 등 모든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 라 어딘가 부딪혀서 소리를 내고 공기를 타고 울리며(진동) 우리의 귀에 도달한다.

소리의 진동이 불규칙적으로 퍼질 때는 북소리, 천동소리, 떠드는 소리처럼 음(pitch)으로 구별할 수 없는 소리(불 규칙한 진동=소음)가 나지만, 고르게 퍼질 때(고른 진동)는 음으로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음향)를 만든다. 1초에 440번 고르게 진동하는 음을 우리는 가운데 C 위의 A음으로 서 로 약속한다. 더 나아가 음향 안에서 협화와 불협화의 변화와 비율을 통해 음악 역사를 구별할 수 있고, 소음과 음향 의 사용빈도에 따라 스타일이나 장르 등을 분리할 수 있다.

음악은 음향과 소음의 균형있는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 고 예술적인 음악은 과학적이고도 수학적인 조합을 넘어 선 질서있는 화음, 리듬, 선율의 예술적 결합에 의해 만들 어진다. (대부분, 악보가 남아있는 중세와 르네상스나 바로 크 음악은, 음악의 주요소인 선율과 화음을 위주로 하는 ‘ 음향 ’ 을 사용한다. 고전과 낭만시대 또한 늘어난 타악기 (음이 없는 악기들-소음을 사용)역할에도 불구하고 음향 의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음이나 선율 을 제외하여 비선율적/비화음적/비리듬적 소음의 요소들 을 강조하여 새로운 소리를 찾아 몸부림치는 현대음악에 도 음향이라는 요소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음악의 요소(원재료와 음악의 재료 비교)

리듬, 선율, 화성, 강약, 음색 이 다섯 요소는 음악에 나타나 는 요소들이다. 이 중에서 강약이나 음색은 다른 세 요소에

비해 장식의 의미가 많고 특히 주된 요소에 해당되는 리듬 과 화음과 선율은 음악의 몸을 이루는 요소이다. 주된 요소 에 대해 짧게 비교해 보겠다.

리듬이란 단어는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달과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 통해 우주에는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발 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무지카 문다나(Musica Mundana; 천 체 음악-보이티우스)라고 이름 지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에 의해 창조된 것을 부인하는 과학자들도 세상의 움직임 에 질서와 규칙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리듬이라는 말은 그때보다 음악 안의 작 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실 이 천체의 움직임은 삶의 속도와 음악의 속도를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이다. 화 음이란 소음(불규칙적인 진동)이 아닌 규칙적인 진동으로 이루어진 음들(pitches)의 수직적(vertical)이고 질서 있는 조 합이다. 화음의 법칙(질서)을 화성법이라고 한다. 화성법 은 시대의 음악 문화와 언어를 따라 점점 변하지만 시대적 균형과 질서를 준수 한다(18-19세기). 선율은 화음의 음들 (pitches)이 수평적(horizontal)으로 펼쳐진 것으로 선율을 만드는 법칙(대위법)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하는 음악 언어 에 맞추어 균형과 질서 안에서 꽃을 피운다(~16-18~20세 기). 리듬과 화음, 선율을 필요상 나누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 세 요소는 음악이라는 틀 안에 섞이면서 서로를 더 욱 돋보이도록 상호 보완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삶 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해 왔다.

하나님의 창조 재료인 원재료와 인간이 창조하는 2차 재료 비교

	원재료	2차 재료=음악의 재료
리듬	temporal, sequential aspect	tempo, meter, duration of notes
선율/화성	frequency	pitch조합
강약	volume, amplitude	dynamics
음색	wood, metal, skin	tone color

먼저 리듬을 보자. 지구가 도는 빠르기(tempo aspect)와 그



안에서 사는 생명체가 만드는 패턴을 가지는 움직임=리듬 (sequential aspect)은 규칙성과 다양한 리듬의 패턴의 조합을 전제한다. 음악의 빠르기(안단테-모데라토-알레그로)와 박자(2/4, 3/4)와 그 안에서 연주되는 다양한 음의 길이는 전체 우주의 법칙(무지카 문다나), 그 빠르기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즉,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1초를 몇 개로 분할하느냐에 따라 빠르기가 결정되고(예: mm, 108~120 moderato 보통빠르기) 2혹은 3을 소그룹으로 묶어 박자를 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 일정한 지구의 회전(공·자전)과 그 시간을 분할한 다양한 빠르기와 리듬과의 비율이 역사를 거치며 음악의 다양한 리듬 스펙트럼(기보법과 함께)을 생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걷는 걸음과 그 옆에 강아지가 함께 걷는 리듬을 잠시 상상해 보자. 사람의 걸음을 2박자의 연속적인 4분 음표(규칙적인 속도라고 가정)로 묘사한다면 네발 가진 동물은 때로는 2박 때로는 3박, 혹은 셋잇단 음표 등 다양한 리듬을 만들 것이다. 정해진 빠르기와 서로 다른 리듬 식가의 결합은 규칙성이라는 배경과 그 위에 얹어지는 리듬 그룹을 만든다. 하나님의 우주 기초는 정말 통일성 있고 끝도 없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진다.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음악적 설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화음/선율의 음 재료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파수(frequency)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40번 진동하는 음을 A(가운데 도 음역)로 정했을 때 한 옥타브 위의 동일음의 진동수(frequency)는 880이고, 한 옥타브 아래의 같은 음은 220이 된다. 옥타브간 동일음(octave identity)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학적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 기초 위에 두 음 사이를 여러 음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많은 가능성 중에 7개의 스케일이 만들어지고 변화음 5개가 들어오는 과정과 역사를 통해 평균률(12개로 동등하게 나누어 7개의 흰 건반키와 5개의 검은 건반키)로 나누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롭다.

소리의 강약(dynamics)은 모든 자연의 소리의 강약의 모방에서 시작하며, 다양한 악기소리(음색)는 자연의 서로 다른 악기재료(나무, 가죽, 혹은 쇠 종류)에서 출발한다. 물론 악기는 인간의 창조물이다. 단 원재료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창조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악기 창조, 음악 창조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리에서 시작한다. 음악의 기초 환경인 공기의 진동과 공명으로 그리고 자연의 재료와 소리의 법칙이 먼저 존재하기에 지금의 오케스트라와 나라별 다양한 음악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되심과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고, 인간의 창조는 그 기초 위에 제 2의 창조를 하는 인간의 위치를 정하는 자리가 된다. 즉, 맑은 자로서의 겸손과 감사,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요구되는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음악 활동의 시작이다.

참고목록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진 에드워스 비이스) 나침반 기독교 문화관(로버트 E. 웨버), 엠마오 예술과 성경(프란시스 쉐퍼),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음악, dcty 꿈을 이루는 사람들

Music in the Balance (Franc Garlock & Kurt Woetzel) - Majesty Music

글. 이경원





유럽의 화해자

ROBERT SCHUMAN

올해는 로베르 쉬망(Robert Schuman, 1886-1963)이 2차 세계 대전 직후 1950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럽 연합의 비전을 선언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후 유럽은 계속해서 그의 비전을 실현하여 오늘의 유럽 연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쉬망은 원래 룩셈부르크 태생이지만 나중에 프랑스 정치가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는 기독교민주당 및 유럽 연합의 창시자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특별히 양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화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리더입니다.

쉬망은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렌 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나중에 이 지역이 독일제국의 영토로 편입되면서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을 통해 독일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로베르도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독일인이 되었다가 1919년 알자스 로렌 지역이 다시 프랑스령이 되면서 국적이 프랑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모국어는 룩셈부르크어였지만 학교에서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이후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신학, 철학, 법 등을 공부하여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마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자 쉬망은 수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변호사가 되었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건강상 병역에서 면제받아 대신 사회 봉사를 했습니다. 1차 대전 후 알자스 로렌 지방이 프랑스령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프랑스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1919년에 국회의원 이 되었고 나중에는 국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전쟁이 로렌 지역의 석탄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독일 나찌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도 참여하다 게슈타포에 체포되었으나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전후에는 프랑스의 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국무 총리직도 2번이나 수행하면서 공산당과 드골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외무 장관이 되면서 전후 유럽의 상호 미움과 불신을 제거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미래의 비전으로 1950년 5월 9일, 파리의 외무부 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는 원칙하에 초국가적 민주 공동체를 유럽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쉬망 선언(Schuman Declaration)’을 발표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유와 평등, 단결과 평화는 기독교적 가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도 그리스도적인 ‘다수의 독재’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섬김’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기초함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미래의 연합된 유럽은 기독교적인 동시에 민주적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에서 단절된다면 평등, 인간의 존엄성, 관용 그리고 연민(compassion)의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유럽의 다양성과 통일성(unity with diversity)도 기독교적 관용과 평등이라는 정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공동체의 기존 회원국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의 원칙에 따라 쉬망의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쉬망의 선언에 동의했고 콘라드 아데나워가 수상으로 재직하던 독일을 비롯해 모든 유럽국가들의 석탄철강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51년 파리 회의 이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기초로 1958년에 유럽 의회의 전신인 유럽 위원회(European Assembly)가 설립되었으며 쉬망이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연합은 5월 9일을 그 창립 기념일로 정하고 지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아마도 유럽의 현대사에 있어 철의 장막이 드라마틱하게 무너진 것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양차 세계 대전 이후 역사에 유래가 없는 60년간

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망은 기독교 민주당원이었고 독립적이며 행동적인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나아가 그는 유럽 연합뿐만 아니라 유럽각료회의(Council of Europe)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창설하는 주역이 됩니다. 1960년, 건강이 악화되어 은퇴하면서 그는 유럽의 아버지(Father of Europe)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쉬망은 동시에 성경도 깊이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포함한 중세 철학의 전문가였으며 특히 자끄 마리탱(Jacques Maritain)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The Schuman Center가 창설되었습니다(www.schumancentre.eu). YWAM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제프 파운틴(Jeff Fountain)이 쉬망의 비전을 성경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유럽의 과거를 통해 내려오는 신앙적 유산들을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분석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쉬망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양차 세계 대전을 종식하고 전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면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유럽의 화해자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후 5:18)”

글. 최용준 목사(캐나다 VEW 교수)



부담스러운 고민 회심을 말하다

저자는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지성과 감격을 동반하는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 요소, 온전한 회개, 성령의 임재, 성례적 요소, 공동체적 삶이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며, 이는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를 낳는다”고 말한다.



회심(회개 또는 돌이킴)의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신앙 고백이지만, 선뜻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행보, 예수님의 발자취를 좇게 된다. 반면 회심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회심은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을 만큼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는가 등 명확하게 회심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드물기에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리전트대학 영성신학 교수인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CUP 펴냄)은 회심의 정의와 회심하게 하는 7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지성과 감격을 동반하는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 요소, 공동체적 삶이 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며, 이는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를 낳는다”고 말한다.

책에서 말하는 회심하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신뢰하며,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진리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의 회심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이끄는 삶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려는 ‘참회’가 따른다. 참회에는 용서가 뒤따른다. 우리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에 아무런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

한편 믿음과 참회에는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난다. 예수님



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더 이상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난생 처음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심에는 충성의 대상을 바꾸려는 결단과 절대 순종하려는 헌신이 뒤따른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라는 바울의 말은,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고백이다.

충성의 대상이 바뀐 그리스도인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은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다. 또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집중한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음지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단과 헌신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할 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성령의 내주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여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도 곧 돌이킬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회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된다. 만일 회심을 경험했지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 결여된 불완전한 회심 상태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개인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상의 회심을 일으키는 7가지 요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이며, 성령은 이 요소들을 통해 죄를 인식시키는 한편 연합한 자를 위로하며, 소명을 발견하게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과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심은 거짓이라고 강조한다.

“신학이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전통에 따라 회심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고, 균형을 잃은 자의적 해석이 다분하다. 회심이 단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회심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글. <아름다운 동행> 편성희 객원기자

* 위의 글은 격월간지 <아름다운 동행> 8월 22일자 15면 기사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4기 개강

지난 10월 2일 오후1시 여의도 국민일보 5층 대회의실에서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중기과정 4기 개강예배와 특강이 있었다. 이날 개강예배는 1부: 조정민 CGN-TV 대표의 말씀 인도, 2부: 이인용 삼성전자 부사장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전 과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10월 8일~9일에 있을 1박 2일 영상캠프에 관한 안내 등으로 4기 일정을 시작하였다.

2009년 1월 국민일보 신입기자 세계관 연수 프로그램부터 시작된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회의 제반문제들을 바라보고 미디어의 세계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칠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9월 한 달 간 진행된 서류 전형과 3차에 걸친 면접을 통하여 선발된 21명의 수강생 전원은 미디어 사역에 관하여 뜨거운 열정과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디어 영역에서 종사할 젊은이들에게 생생한 현장에서의 실무

기술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국민일보, CGN-TV, CTS 등 기독교언론사의 협조와 지원으로 교육을 받게되는 수강생들은 전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료증과 더불어 성적우수자에게는 기독교언론사 취업지원 시 추천서를 발급한다. 지난 3기까지의 수료생들은 현재 기독교언론사나 미디어 관련 기관에서 인턴과정을 거치고 있거나 유학, 대학원 진학, 선교기관을 통한 미디어 사역 봉사 등 다양한 진로를 통하여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부이촌동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강의에 관심있는 회원들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홈페이지(cmca.or.kr)에서 커리큘럼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하면 청강도 가능하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선발은 2011년 4월에 있으며 선발인원은 2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 1 영상촬영 실습중인 수강생
- 2 선후배가 함께하는 보드캠프
- 3 다양한 세계관 강의
- 4 MT를 통한 친교와 팀웍
- 5 영상기획과 사진촬영 실습
- 6 스튜디오 제작실습
- 7 국민일보 필드trip
- 8 영상편집 과제 점검중
- 9 뉴스제작 실기



1



2



3



4



5



6



7



8



9

MEDIA ACADEMY SKETCH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하나의 의식(Ceremony)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내셨습니다. 그때 바로에게 가서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청을 합니다. 물론 그 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로는 10가지 재앙, 즉 장자가 죽는 대재앙을 받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생활의 하이라이트(Highlight)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일까요. '사흘 길'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간 그 백성들을 방황하게하고 가나안땅으로 직접 들여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430년간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가르치시는 목적은, 노예근성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일제강점기 때 36년간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개강예배 설교

미디어의 **소명**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라 너희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0:26~30-



을 지배받으면서 노예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우리 삶에 짜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30년간 노예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노예근성을 뽑는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한가운데에 회막(會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가운데에 회막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회막을 견고 구름이 멈추는 곳에서 회막을 펴서 또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언제나 진 한가운데에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만드는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자리하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싶어서 교육 받았습다. 열심히 돈을 벌고, 출세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하고자 하는 삶이고, 내가 내 인생의 예배를 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하는 일을 광고하고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예배 받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본능과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 사람이 예배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간음하고 사기 치는 것들은 죄의 증상이고,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다못해 교회까지 시끄럽습니까?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장로에 탈락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집니다. 심지어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들도 다툽니다. 담임목사와 장로들도 다툽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진정 주님의 교회라면 무엇보다에 사람들이 다투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조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투고 시끄럽습니다.

해외교포사회의 한인회라는 모임도 한인회 회장 선거 때마

다 두 개, 세 개로 모임이 쪼개지고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미디어는 자신이 세상을 판단하고 주인이 되려합니다.

그렇다면 미디어는 다를까요?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기자가 됩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시비비(是非)를 논하려고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란 무엇입니까? 본인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오늘날 파워의 한 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467만 팔로워(follow)를, 최근에는 레이디가가가 오바마를 제치고 트위터 쿤에 등극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체의 영향력을 앞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트위터 쓰는 사람은 160만이상인데, 1,2,3순위에 드는 사람들은 한 미디어가 갖는 영향력 전체보다 커졌습니다. 현재는 이외수씨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하 아나운서의 트위터는 MBC가 갖는 영향력보다 더 커졌습니다. 독설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미디어보다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한명숙 씨가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지만, 마지막으로 트위터로 동원된 인력이 30만이나 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다음 선거는 트위터 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디어를 향한 사람들의 꿈

미디어를 향한 사람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주도적인 입장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내면에 있는 죄성이 가지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칼자루는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미디어의 확산은 더 심각한 사회병리(病理)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미디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미디어의 확장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미디어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1차 미디어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만든 확장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 소리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잘못된 소리는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메아리를 만들고 공명을 만들어서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나 메시지들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미디어의 중요성

그렇다면 기독교미디어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미디어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출발은 다시 개인이 구원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미디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미디어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어는 가치중립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미디어야말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텍스트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리포트(Report)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열 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 다'라고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리포트 합니다. 같은 사안을 보고 왔지만 열 명과 두 명의 리포트는 상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리포터(Reporter)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도하는 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리포트 하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려내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어가 그려내는 대로 세상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가 그

려내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어떤 곳 뉴스(Good-News)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뉴스가 우울한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뉴스가 배드 뉴스(Bad-News)입니다. 광우병 파동은 어떻습니까? 진실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포된 정보가 나라 전체를 뒤 흔들고 만 것입니까? 교통사고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30명이 되어도, 언론이 보도 안하면 없는 일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두 명 죽는 일이라도 보도하기에 따라서는 이슈가 되고, 그 이슈는 사회전체를 뒤 흔들어 버립니다. 한때 온 땅에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가 날 것처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막상 조류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자살한 사람 2명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류 농장 주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치킨집 주인이었습니다. 언론이 과장되게 이슈화하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이런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디어 환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위해 미디어 환경에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하고, 미디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명이 없다면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꿔야하는 환경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내정되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 정말 곳 뉴스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압도적인 다수의 목소리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각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열



명 때문에 백성들이 다 돌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리포트를 진실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패널티(Penalty)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의 리포트가 이 땅에 만연한다면, 그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실을 담은 굿 뉴스를, 생명의 굿 뉴스를 전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이 빛이라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을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땅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에텐동산이 오염된 이래로 이 땅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리들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하면 달라집니까? 이 땅에 수많은 혁명들이 되풀이 되었었지만, 모든 혁명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북한 땅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삼대 세습을 해도 좌파는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어떤 진보적 인사들도 북한의 삼대 세습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슈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미디어 속에 담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나의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누구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정치학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감

동케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영혼의 메시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의 말과 언어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묵히고 묵힌 영혼 속 깊이 담겨진 언어가 쏟아져서 생명의 메시지가 되면, 우리들의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감동할 것입니다.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가 감동으로 세상에 굿 뉴스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가 알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광고하지 않습니다. 또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고는 시간이 지나면 속았다는 느낌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지기 시작하면 비록 더디고 늦은 것 같지만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는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동안 선한 메시지가 흘러가고, 우리들이 활동하고 중사하게 될 어떤 미디어 영역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과정 속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결단들이, 어둠 속에 빛이 될 것이고 소망을 잃은 세상의 한줄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미디어가 전한대로 변해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들이 회복되어 구원받는 인생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글. 조정민 CGN-TV 대표이사,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원장





언론을 요즘에는 미디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의 corporate communication팀의 팀장입니다. 28년째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직업은 한 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론은 커뮤니케이션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상시적인 왜곡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저는 앵커로 만 4년을 일 했는데,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이 일은 세상적으로는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전해지는 뉴스 25쪽지 중에 확신이 없는 것이 많을 때는 10쪽지까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 사실에 가까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뉴스란 재구성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하는 뉴스가 제대로 재구성된 리얼리티인가하는 것을 매일 확신하지 못한 채 뉴스를 내보낼 때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직업에서 벗어난 현재라고 해서 기자라는 부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개강특강

전직 언론인의 체험적 언론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라 너희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보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0:26~30-



니다. 그래도 그 때보다는 흥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책을 보다가 고대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는데, 이 서문에 보면 “나는 나에게만 일어난 이야기만 쓰지 않고, ... 가능한 사건 현장에도 가 보았다. 그러나 진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불완전한 기억에 의지하여, 편파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민이나, 2500년 전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고민은 같았던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 정도는 정말 크지만, 인간의 인지구조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역사의 대 사상가들이 나오는 시기인 B.C 2C 춘추전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나라 환공이 누각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수레바퀴의 굴대를 끼우는 윤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윤편이 글을 읽고 있는 환공에게 “전하는 무엇을 읽고 있는지요?”하고 물었습니다. 환공이 “옛 성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네. 그는 예전에 죽은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편이 “전하는 그러면 그 사람의 껍데기를 읽고 있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윤편의 말에 화가 난 환공이 그 말의 뜻을 묻자 윤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퀴를 끼운 것이 수 십년입니다만 조금만 느슨해도 바퀴가 빠지고, 조금만 뽀뽀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끼우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손으로 느껴서 알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성인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책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옛사람의 껍데기일 수밖에요.” 이 말에 제나라 환공은 그 말에 동의하여 윤편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윤편이 수레바퀴 깎는 기술을 말로 다 설명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언어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서양의 투키디데스 이야기와 동양의 윤편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서양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20세기에 와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당시 모든 언론인들은 모스크바에 상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예고 기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짜르체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를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월터 리프만은 그 당시 미국 언론이 러시아 혁명에 관해 정확한 실상을 전하는데 실패한 이유에 대해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투키디데스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특파원 역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기자들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언론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세상은 재구성된 현실입니다.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언론인의 의지, 판단, 가치관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은 이런 모양입니다’라고 던질 때 이것이 곧 규정이 됩니다. 즉 언론의 힘은 상대를 규정하는 힘입니다. 결국 이것은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보고 싶은 사실만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듣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실을 수집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 간에 갈등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보는 세상이야.”라고 서로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칼의 노래〉를 쓴 소설가 김훈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인 후배 기자들이 소설가와 기자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자로 생활할 때 하지 못한 원한을 지금 풀고 있어. 기자는 6하 원칙에 맞게 써야하는데, 지금 너무 편해. 기자는 사실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의 존엄함을 알아야 해. 지금 신문을 봐.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의견을 사실인 것 같이 써. 미쳤지. 소



설을 쓰니 너무 편해.”

김훈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남한 산성>에서 첫 문장을 “꽃은 피었다”로 할지 “꽃이 피었다”라고 할지로 일주일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글을 쓰면서 고민하던 김훈인데 왜 소설 쓰는 것을 기자 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편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문학평론가 김우창은 언론계의 분열과 당파성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이 성향에 따른 분열을 유도하기 보다는 사실 보도에 만족해야 하며, 중립적으로 사실을 밝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는 검증입니다. 여러 시각에서 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직업윤리입니다. 이러한 검증을 거쳐도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무지기수인데, 하물며 언론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뒤죽박죽으로 마구 쏟아내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언론이 각자 어떤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초에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론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의식으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너와 ‘틀리’가 아니라 ‘달라’입니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게 된 보스톤의 한 기자는 한국 사람들이 ‘wrong’과 ‘different’를 혼용한다는 사실에 의아했습니다. 한국인은 오랜 세월 좁은 국토 안에 동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남과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것을 수용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와 함께 섞이면 갈등은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

한 본질적인 고민을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학과 언론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중국 수당 5호 16국 전문가이며 세계적인 대가인 박한재 교수의 <역사 기행>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필봉보다 더 무서운 살상무기는 없다. 필자는 이것을 문자의 폭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처럼 언론은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법적인 것은 아니라도 인격적으로 살인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동네 오음진 신부는 파렴치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 받았지만 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기꾼, 비리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5년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오음진 신부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고대에는 사형기가 있어 인간을 처단했으나, 현대는 마스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판단하는 직업의 두려움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하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 기자가 되고 싶다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자고 했습니다. 판단을 직업으로 하는 일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직업을 흔히 소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직업으로서의 언론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있었습니다. 언론인과 재판관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규정한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성경이 재판관에게 주는 교훈은 언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17절에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만으로 듣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 말 것이며(언론에 휘둘리지 말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기도하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습니다.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하게 하고 타인에게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



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사작성의 기초〉를 저술한 이화여대 이재경 교수가 원고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기자가 되는 자질에 대해 기자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의감을 없애든지 아니면 균형감각을 함께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감이 균형감각으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폭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저항시인인 김지하는 정의로운 폭력은 사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권에 맞설 때 힘이 없어서 정의감을 가지고 화염병을 던지는데, 이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은 균형감각이 따라오지 않으면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겸손 다음 덕목은 검증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윤리이자 기본입니다. 이 검증 과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은 속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독교적 언론관의 결론은 겸손과 정직입니다. 너무 싱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언론인을 포함하여 모든 언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장이 아닙니다. 정의감에 함부로 휘둘리기 보다는, 언론인의 소명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요나는 연민보다는 열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든 세상을 한번 시원하게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1장 1~2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나의 힘을 상대방에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가장 본질적 속성은 교만입니다.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권력이고 곧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했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교만하기 쉬워서 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인은 특히 더 겸손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진실을 모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아저씨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법

이정범 감독의 '아저씨'

영웅의 탄생

영화 <아저씨>는 뱀 배송 감독의 영화 <레옹>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채 전형적인 장르영화의 규칙을 따른다. 그것은 고독한 영웅의 존재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버려진 아이와의 만남, 그리고 아이에 대한 특별한 돌봄 내지는 악당으로부터의 구원이 영화의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주인공의 화려한 액션이 수를 놓으며 오락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동네 전당포를 운영하며 은둔생활을 하는 차태식(원빈)은 고독한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영웅의 자질은 그가 전직 국정원의 특수요원으로서 하가된 살인을 저지를 만큼 특별한 신분과 능력의 소유자란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미약할 때 일당이 권총으로 위협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대담함을 보여주는가 하면 맨손에서 총갈 가릴 것 없이 다재다능한 살인기술을 구사하는 면모는 영웅의 남다른 자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웅이 모든 능력을 다 갖추어진 완벽한 존재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영화 <아저씨>가 5백만 관객을 넘길 만큼 대중적 관심을 모았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영웅의 모습을 헤아려 볼 수 있어 야만 한다. 특별한 신분과 능력을 가진 영웅들은 영화 <슈퍼맨>에서 <판타스틱>의 유전자들언변이 인간들에 이르기까지 이미 할리우드의 영화들 속에서 익숙할 만큼 충분히 돌아왔다. 이들 인간 능력이상 초월적인 영웅들은 멋질 수는 있지만 친근감을 주는 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아저씨>의 원빈은 다르다. 그는 변두리 동네 골목에 자리 잡은 전당포 주인으로 등장한다. 덩수룩한 머리에 잠바를 걸친 모습은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영웅의 이미지는 고사하고 잘 생긴 남자배우의 인상과도 거리가 멀다. 그 대신 서민적이며 친근하다. 어쩌면 원빈의 멋진 외모를 기대하고 영화를 보러온 관객이 있다면 초반부에는 크게 실망했을 만큼 그의 외모는 평범하다 못해 궁색할 정도다. 거기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상처받은 영혼의 소유자란 점은 관객의 동정을 쉽게 사는 것은 물론 원빈의 잔인한 공격성을 응원할 수 있도록 만든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상처입고 은둔생활을 하는 작은 전당포 주인의 영웅적 면모는 유사한 액션영화의 구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판 속에서도 나름대로 독특한 한국적 정서를 발산하며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서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친근한 구원자 아저씨

영화 <아저씨>는 강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함께 받고 있다. 긍정의 축 선상에는 주인공 원빈의 어린 듯 하면서도 강직한 이미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액션연기가 놓여 있는 반면에, 부정의 축 선상에는 잔인한 폭력의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마저도 장기밀매의 대상으로 삼는 일당이 보여준 장기적출 상황은 충격적이고, 잔혹한 죽



음의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데는 선과 악이 따로 없다. 과도한 폭력묘사로 인해 두 번이나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았던 <악마를 보았다> 못지않게 폭력을 동반한 죽음의 이미지는 화면 가득 넘쳐난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아저씨>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성을 더해 가는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경향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포함 된 걸그룹의 의상은 노출경쟁이라도 하듯 섹시함이란 이름으로 성적이미지를 발산하고 있는가 하면, 박찬욱 감독의 복수 삼부작(복수는 나의 것' '올드 보이', '친절한 금자씨)이나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이후 액션은 거칠어졌고 살인장면은 잔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영화 제목처럼 아저씨의 특별한 역할에 있다. 사전적 의미로 아저씨란 이름을 알지 못하고 특별한 인척관계도 없는 중년의 남성을 친근하게 호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단지 이웃으로 알고 지낸 여자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영화적 설정으로 넘길만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관계의 기대감이 내재되어 있다. 아저씨와 어린 여자 아이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성폭행사건을 연상하기 쉬운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 영화 속 아저씨로부터 보호와 구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영화에는 액션을 통한 보호와 구원의 행위가 도드라져 보이지만 그 이전에 아저씨가 구원자와 보호자로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상황을 바로 읽는 일이었다. 내가 무심하게 지나쳤을 때 아이가 받을 고통과 상처에 대한 현실이해가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일으킨 것이다. 마약밀매에 연루되어 처참한 주검으로 변한 아이의 엄마를 목격한 주인공에게서 충격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신분노출을 꺼려하여 경찰관 앞에서 어린 아이를 부인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대는 약자를 도울 아저씨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무엇이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지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눅7:31-32)

글. 강진구(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이 글은 갓피플매거진 2010.10월호에 실린 글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1. 통합주년 기념 임원가족수련회 개최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임원 가족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통합 이후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주요 임원과 사무국 직원, 전직 간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을 나누고 친교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관 특강, 성격진단 테스트, 유적지와 워터파크 탐방, 지부_분과장 회의 등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CTS, CBS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행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4기 개강 및 영상캠프

10월 2일(토) 오후1시 국민일보 5층 대회의실에서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중기과정 4기 개강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10월 8일~9일까지는 1박2일 영상캠프를 경기도 이천 푸른초장 기도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21명의 수강생은 앞으로 5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미디어 영역 가운데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3. 청소년교재개발위원회 UTT(담당: 권성윤사장, 정희영 교수)

청소년사역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하여 Understanding the times를 번역하고 국내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현장에 계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11월 22일(월) 6시 30분에 이촌동 사무국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 27회 기독교문화회 11월 27일 개최

제 27회 기독교문화회가 11월 27일(토) 명지대학교 방목종합학술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논문발표 및 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들은 학회 사무국으로 전화(02-754-8004) 또는 이메일(gihakyun@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홈페이지 중국어버전 오픈

홈페이지 중국어 버전이 오픈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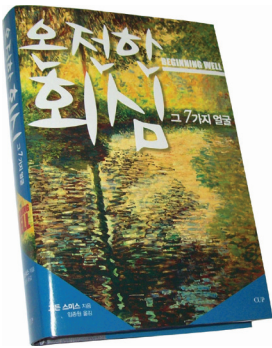
http://www.worldview.or.kr/subpage/index_china.asp

앞으로도 영어와 스페인어 버전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사이트 내용의 번역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도서출판 CUP 신간 온전한회심 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



도서출판 CUP의 신간서적 '온전한회심(고든 스미스 저)'이 2010년 기독교출판문화상 신앙일반 국외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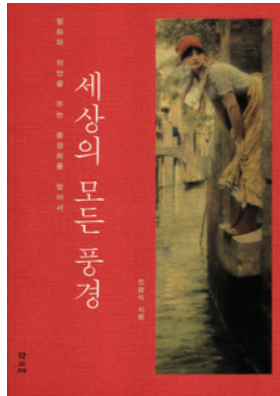
8. 이촌동 사무국 리모델링 공사

이촌동 사무국이 모델링 공사를 통해 총 20석의 좌석을 갖춘 소규모 강의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강의실에는 영상장비를 구비하여 각종 세미나와 동영상 강의 콘텐츠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회원소식

1. 전광식 교수 신간발간 '세상의 모든 풍경(학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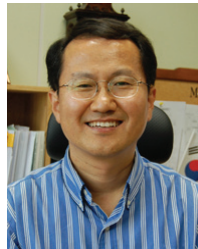
본 회의 이사인 전광식 교수가 신간 풍경화기를 발간했습니다. 저자는 풍경화들을 풍부한 문학과 독특한 철학적 사유가 담긴 글로 풀어내어 일반독자들이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길원평 교수 동성애 반대모임



길원평 교수는 지난 8월 28일(토) 오후 3시에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15층 한기총회의실에서 동성애 확산반대 단체결성 모임을 갖고 단체명과 정체성, 조직 등을 정하였습니다.

3. 조성표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 장로 피택



조성표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장(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 지난 9월 19일(주일) 저녁 대구 성덕교회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4. 오창섭 회원 장로 임직식



오창섭 회원(서라벌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은 10월 16일(토) 오후 3시 대구동도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2010.7~8월)

개인회비_단위(만원)

강대훈(2) 강상우(6) 강은정(1) 구성덕(1) 구재형(0.6) 구재환(1) 구준원(5) 권명중(1) 권민규(2) 길원평(1) 김경숙(1) 김경식(1) 김경희(3) 김기웅(1) 김기현(1) 김남진(1) 김대용(1) 김동원(6) 김미정(1) 김병국(1) 김상범(6) 김상옥(1) 김상옥(0.5) 김선화(3) 김성권(0.6) 김성락(10) 김성상(2) 김세령(1) 김세완(1) 김승태(20) 김영애(2) 김영완(2) 김영찬(1) 김영화(1) 김옥태(4) 김용식(4) 김원수(20) 김윤권(3) 김은하(1) 김은혜(2) 김일환(1) 김정명(1) 김정심(4) 김정일(2) 김정준(1) 김정호(2) 김중구(0.5) 김중락(6) 김찬호(0.6) 김창현(0.6) 김철수(1) 김태양(0.6) 김태윤(0.5) 김해경(2) 김현승(1) 김혜숙(0.6) 김혜창(1) 김홍섭(2) 남상수(1) 남서희(1) 노용환(4) 류재신(12) 류화원(2) 마민호(1) 박경준(0.6) 박기언(1) 박문식(6) 박상은(20) 박상진(6) 박승룡(1) 박시운(2) 박신현(6) 박은숙(6) 박준모(1) 박창우(2) 박천규(1) 박한배(2) 박해일(2) 배도환(1) 배무련(1) 배은경(4) 범경철(1) 변우진(4) 사공성대(1) 소애자(5) 소종화(1) 손영일(1) 손종숙(1) 송시섭(4) 송인규(10) 신기혁(1) 신현주(1) 심정하(1) 양성만(2) 양성일(2) 양숙(1) 양영태(1) 양태윤(10) 오범석(0.6) 오의석(6) 오혜정(2) 우병훈(6) 우시정(4) 우원주(1) 원호영(1) 유건호(2) 유영준(2) 유재봉(36) 유지황(2) 유창은(1.5) 유충열(1) 유해무(2) 윤경선(0.6) 윤완철(10) 윤종선(1) 이경미(1) 이근배(1) 이근호(9) 이길수(1) 이길형(2) 이노운(1) 이대환(4) 이대희(6) 이명수(2) 이명희(4) 이상용(12) 이성수(2) 이수연(1) 이수정(0.6) 이시영(2) 이영홍(0.5) 이원배(1) 이윤희(1) 이은미(1) 이은실(6) 이인수(1) 이인주(1) 이종국(2) 이종범(5) 이한기(1) 이향숙(1) 이현정(4) 임선제(1) 임일택(2) 임재영(1) 임지연(3) 임춘택(1) 임형준(1) 장남기(1) 장병두(1) 장수영(6) 장현일(1) 전광식(20) 전성구(2) 전정진(1) 전충국(1) 전태수(2) 정동섭(6) 정범채(0.5) 정은애(6) 정현주(2) 정희영(10) 조무성(6) 조성진(0.6) 조용현(2) 조인진(1) 조창근(1) 조혜경(1.5) 주경식(1) 주성철(2) 채기현(10) 최광수(1) 최동원(3) 최연숙(2) 최외숙(10) 최용준(1) 최태연(5) 최한빈(1) 최현두(2.5) 최현일(10) 한윤식(10) 한인관(0.6) 한혜실(2) 허재일(1) 허찬영(2) 현은자(6) 홍기원(1) 홍말순(12) 홍미경(2) 홍성민(1) 홍승기(4) 황나란(1) 황의서(1) 황정진(6) 황정현(0.6) 황혜정(2) 김의원(20) 손봉호(10) 양승훈(90) 조성표(500) 김승욱(230) 김원수(100) 김의원(100) 손봉호(50) 양인평(30) 이선일(50) 조성표(30) 조주환(50)

후원기관_단위(만원)

100주년기념교회(60) 개봉교회(5) 국군중앙교회(40) 남서울교회(20) 남서울은혜교회(20) 다니엘새시대교회(20) 두레교회(6) 명성교회(20) 사랑의교회(140) 산정현교회(20) 삼일교회(10) 새로나교회(20) 새언약교회(10) 샘물교회(20) 성덕교회(20) 성덕중앙교회(10) 수영로교회(40) 신석교회(20) 언약교회(30) 온천제일교회(20) 은혜로교회(20) 자운교회(20) 중앙대학안성교회(10) 참빛교회(20) 호산나교회(20) 아세아연합신학대(10)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연구와 기독교세계관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 <Worldview>과 학술지<신앙과 학문>또는 <통합연구>을 보내드립니다.
2. 석사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수 있습니다.
5. 년1회 CUP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회비_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우리은행 465-04-100681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FAX(0303-3272-4967)로 보내주시면 사무국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CMS 출금이체 신청서

담당	책임자

앞

신 청 인 정 보			
상 호 (성 명)		납 부 자 번 호	
전 화 번 호		(고 객 번 호)	
휴 대 전 화		출 금 일 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이 메 일			미결제시 출금일 이후 재청구함.

계 좌 정 보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은 행 명	은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
월납입액	금	원 (₩)

【 CMS 출금이체 약관 】
<p>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야 합니다.</p> <p>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p> <p>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p> <p>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p> <p>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p> <p>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p> <p>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정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p> <p>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p>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p>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p>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신청자 유의사항 ※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강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강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010년 제27회

기독교문학회 논문모집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일시 : 2010년 11월 27일 (토) 10:00 - 19:00

장소 : 명지대학교 방목종합학술관 국제회의실

주최: (사)기독교경영연구원, 문화선교연구원,
기독교인문학연구소, 한국누가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